제3강 3대 마케이아 Ⅱ

(1교시)

◆ 3대 마케이아

▲ Metis 여신의 조언

‘ Titan과의 전쟁을 대비하라.’

→ 티탄 뿐 아니라 크로노스마저도 무서워했던,
헤카톤카이레스 (Hecatoncheires) 3형제와 키클로페스(Cyclopes) 3형제를
타르타로스에서 나오게 함.

▶ 헤카톤카이레스

▶ 키클로페스

www.artnstudy.com

가이아 여신의 소망이 제우스에 의해 이루어짐.

키클로페스	브론테스 → 천둥
	스테로페스 →번개
	아르게스 →벼락

→ 그리스 반도가 특정 시기에 화산, 지진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키클로페스 3형제의 선물
제우스 → 천둥과 번개, 벼락이 동시에 내리꽂히는 '불벼락'을 선물. ; 그리스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연재해가 천둥, 번개, 벼락으로 인한 재해.
포세이돈 → 바람, 구름 비를 모을 수 있는 '트리아이나'를 선물.
하데스 → 머리에 쓰기만 하면 형체가 보이지 않는 투구, 퀴니에 'Kynee'를 선물. ; 인간에게 죽음은 부지불식 중에 찾아오는 돌연적 사건. 인간에게 죽음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 Titanomacheia

갑자기 쳐들어온 티탄을,
제우스가 불벼락을 내리고, 백수 3형제가 산 위로 올라오는 티탄신들에게 돌을 던짐.
포세이돈이 깔려진 신들의 돌무더기 전체를 하데스로 가져간다.
하데스는 돌무더기를 타르타로스에 감금 시키고, 스틱스 강을 감아 빠져나올 수 없게 한다..

Titanomacheia
■ Titan 신들과 Olympos 신들 간의 전쟁 ■ Matis여신의 충고 ■ Hecatoncheires 3형제와 Cyclopes 3형제의 도움 ■ 신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짐

▲ Gigantomacheia
티탄에 대한 제우스의 처리 방법에 화가 난 가이아 여신은 제우스를 응징하기 위해,

www.artnstudy.com

우라노스 정기로 복수의 여신 3자매와
기간테스 (Gigantes) 를 낳는다.

▷ Gigantes
→ Gigas들
→ 웬만한 손은 두 손으로 옮길 만큼 힘이 세고,
키가 커서 일어서면 하늘에 닿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도 허리가 잠길 정도.
신이 아닌 필멸의 존재.

Offspring either of Uranus &Gaia, or of Uranus ' Blood:
Agrius 2, Alcyoneus 1, Clytius 6, Enceladus 2, Ephialtes 1,
Eurytus 7, Gration, Hippolytus 3, Mimas 1, Pallas 4,
Polybotes, Porphyrion 1, Thoas 5.
GIANTS, by herself:
Alpus, Chthonius 4, Damasen, Peloreus, Typhoeus 2.

▶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

기간테스들이 무방비상태의 올림포스 신들을 공격한다.

신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던 때, 떠도는 예언이 있었다.
'인간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
→ 헤라클레스가 참전해서, 기간테스 대장인 알키네우스(Alcyoneus)를 죽인다.

▶ 식인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헤라클레스

www.artnstudy.com

▶ 기간테스 팔라스(Pallas) 를 죽인 니케 여신

▶ 기간테스를 무찌르는 아테나 여신

신은 인간의 도움으로 기간테스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 그 당시 인간의 인식, 자기 반성이 대단히 고양되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인간의식의 고취, 고양.

▷ 사람의 신화 (떠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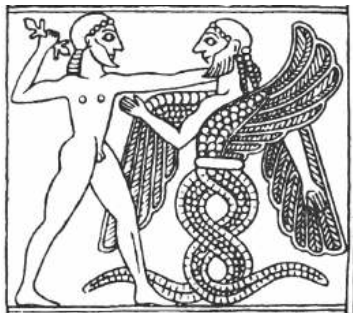
한 몸에 양성을 가진 기간테스가 가장 강력한 제우스의 불벼락을 맞고 반으로 잘렸다.
이를 애처롭게 보던 아폴론이 죽어가는 기간테스의 살을 모아 묶었다. 그 묶은 곳이 배꼽.
→ 그리하여 인간은, 반으로 잘린 존재기 때문에 늘 반쪽을 그리워함.
이것은 로마 시대나 그 이후에 작가들에 의해 각색, 재구성, 재해석된 사람의 신화다.

▲ 튀폰(Typhon)과의 전쟁

가이아 여신은 타르타로스와의 사이에서 괴물 튀폰을 낳는다.

www.artnstudy.com

Typhon과의 전쟁
■ 괴물 튀폰과 올림포스 신들과의 전쟁. ■ 튀폰은 가이아 여신이 또 다른 복수를 위해 낳은 괴물 ■ 아테나 여신과 헤르메스의 도움으로 제우스가 승리 ■ 완전한 올림포스 신들의 시대를 이룸



▶ 튀폰을 죽이는 제우스

튀폰

→ 얼굴은 용, 상반신은 날개 달린 사람, 하반신은 뱀, 손가락은 독사 백마리.
몸집은 기간테스보다 더 크다.
신들조차 처음엔 혼비백산 달아날 정도로 끔찍하고 거대한 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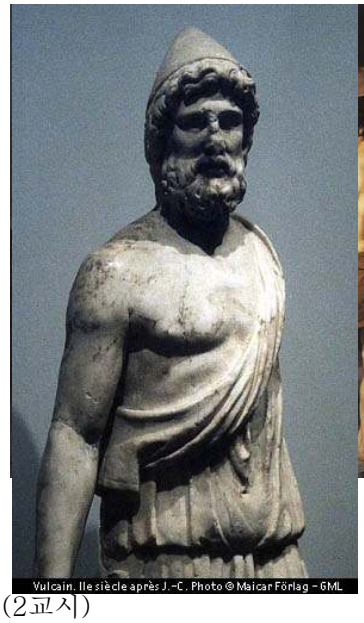
⇒ 그 당시 그리스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두려운 모습.

→ 헤파이스토스의 작업장이 있는 하이모(Haimo: 피)산에 묻힌다.

⇒ 화산활동.

▶ 얼굴이 일그러진 헤파이스토스

www.artnstudy.com



(2교시)

▲ Gaea Theory

Gaea Theory 해석 가능성
■ 가이아 여신은 자애로움과 응징이라는 양면성을 소유 ■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에 대한 태도 → 자신에 대한 고난을 인내하면서도 순리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응징의 역사를 보임. → 현대 환경 철학에서 다루는 부메랑 효과. → 가이아 이론: 대지는 자신의 자정능력까지는 모든 것을 감내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인간의 생명을 목조르는 위협적인 존재.

▲ 올림포스 12주신들의 시대

▶ H.D.F. Kitto (The Greeks) 에 따르면,
그리스 북방으로부터 고전 그리스어를 사용했던 이민족으로부터 토속민들이 지배당했다.
이것이 3대 마케이아라는 신화로 용해된 것.

제우스의 형제들	하데스 포세이돈 헤라 헤스티아 데메테르

www.artnstudy.com

제우스의 자식들	아폴론 아르테미스 헤르메스 헤파이스토스 아테나 아레스 ※ 아프로디테 / 디오니소스

▲ 헤라클레스 (헤라의 영광)

제우스(Zeus)와 알크메네(Alcmene)의 아들

헤라 여신은 질투나 시기심이 많은 여신이 아닌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는 신.
자신이 주관하는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제우스의 여인들을 응징하였다.

헤르메스는 헤라가 산책하는 길에 알키데스를 두었다.
배고파 우는 알키데스에게 자애로운 어머니인 헤라는 젖을 물림.
헤라 여신의 젖이 흩뿌려져 만들어진 길 → Via Lactea
땅으로 떨어지는 젖 → 백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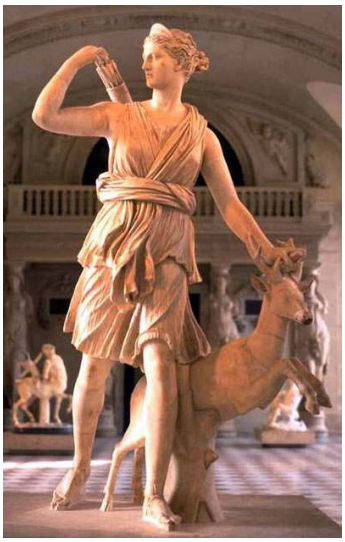
▶ 은하수

▶ 어린 헤라클레스에게 젖을 먹이는 헤라

www.artnstudy.com

올림포스 신들의 구성
대신 제우스 주신 제우스를 제외한 11신 버금신 딸림신

▶ 아폴론



▶ 아르테미스

▶ 헤르메스

▶ 헤파이스토스

▶ 아테나

▶ 아레스

www.artnstudy.com

▶ 아프로디테

▶ 디오니소스

www.artnstudy.com